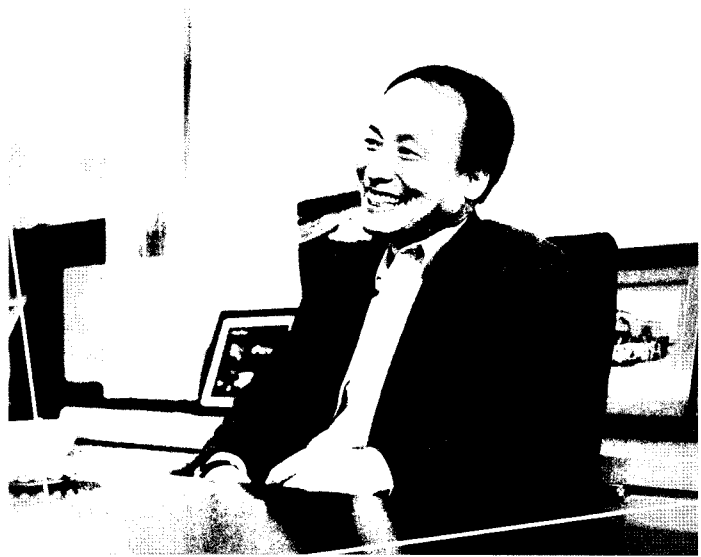


희망으로 내일을 보고, 책임으로 오늘을 살 것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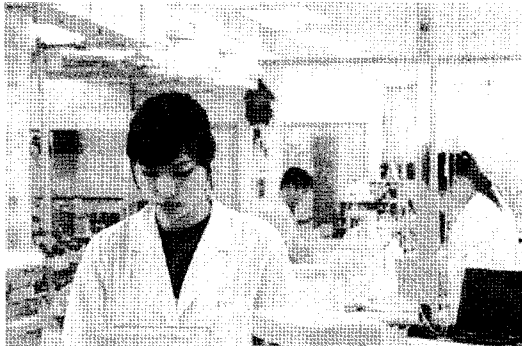
“고객과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며 개인과 조직 모두 성장하는 좋은 일터를 가꾸는 것에 큰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과 화합으로 일터를 가꾸어가는 CAPI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지요. 비전을 가진 행동은 힘이 있고 외롭지 않으며, 열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화합은 상승에너지를 주며, 삶을 그리고 일터를 풍요롭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영방향은 고객/현장 경영, 경쟁력 경영, 그리고 동반자 경영입니다. 부연한다면 고객과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합리적 결정을 제때 내리는 것,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품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 그



리고 특약점/사업소와 고객의 성장을 전제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보균 사장이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사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CEO로서의 소신이다.

경남 진주가 고향인 이보균 사장(53세)은 서울대 축산학 학사·영양학 석사, 미네소타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네소



▲ 중앙실험실

타대학 축산학과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후로는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부장·이사·상무이사를 거쳐 퓨리나 량팡 사장, 청두 사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08년 6월에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사장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국내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과감한 결단력을 보인다는게 주위의 평이다.

다음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인간 이보균 사장과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앞날을 조명해 본다.

Q. 유년시절 및 학창시절의 추억은?

A. 유년과 학창시절 하면 상당히 폭이 넓은 시간인데, 여러 추억들이 있겠지만, 큰 줄기는 역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큰 평야지대에 있는 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데, 풍요롭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이었다고 봅니다.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아 책 한 권을 십수 번씩 본 기억이 있는데 속도는 빠르지는 않아도 사색의 시간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

고, 돌아보면 느낌이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도시로 나왔는데, 어찌면 변화나 속도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학생 중 달포 넘는 지리산 산행, 서북능선 등반, 친구들과 함께한 천리포 수목원 탐방과 울릉도 일주, 농약사용실태 조사 아르바이트로 작은 읍들을 달포 이상 돌던 일, 목장 탐방과 실습 등... 기억들이 새롭지요. 축산을 전공하며 가질 수 있었던 기회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원과 유학생생활 중 전공과 분야에 전문을 넓힐 수 있었던 점도 참 소중한 생각합니다.

Q. 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A. 글썄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다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나 시도를 추구해 가는 편입니다. 가끔 유머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웃어주고 좋게 봐 주니 고맙지요.

Q. 사장님의 인간성(죄우명 및 생활신조)은?

A. ‘희망으로 내일을 보고, 책임으로 오늘을 사는 것’

사람은 어디건 있는 자리에서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을 가능한 작게 하려 하고,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과 가족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그 힘을 많이 구하지요.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새로운 변화 속에서 회사의 비전과 역할을 준비하며 기대와 긴장된 마음으로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사장의 임무를 맡은 지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합심하여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회사의 성과라기 보다는 우리의 고객들의 사업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그분들이 성공하고 성장해야 우리 사업도 건강해 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 한해 많은 고객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지향한 다양한 노력과 2세 축산인과 비전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Q.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마케팅 전략 중 돋보이는 것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인 '대관령한우', '의성미늘포크' 등 생산자조직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비롯해 축종별 마케팅 전략이나 시장차별화 전략 등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고객의 선택을 받는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은 개방된 시장환경 하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위 20-30% 농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유지하며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도록 함께 방법을 찾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사업목표입니다. 외국투자 법인이지만 외국회사라기 보다는 한국 축산에 그 기반을 둔 한국기업 (Korea-based company)이란 사명감으로, 이제 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면의 파트너십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Q.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회환원사업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환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올해 문화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속한 산업과 사회에서 폭넓은 나눔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장기적이고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 설립된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축산업계 유일한 재단이라는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지역 사회에 공헌이기 보다는 우리가 속한 산업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 성장과 함께 더욱 역할을 키워 갈 계획입니다.

Q. 올해는 기존에 체결된 FTA의 국회비준 및 호주 등과의 FTA의 본격적 추진 등으로 시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료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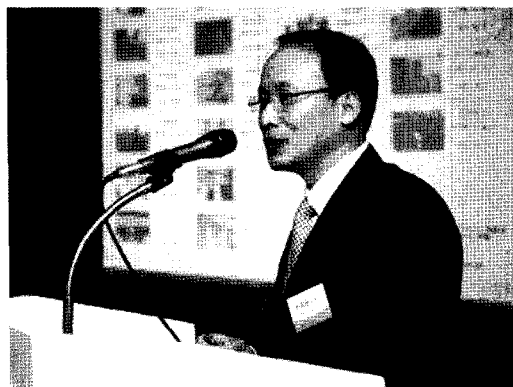
A. 글로벌 경제에서 시장개방은 대세입니다만 그 속도나 정도는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

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비를 하는 노력과 산업주체들의 자신감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 방역, 생산성 개선을 위한 시설 및 환경정비, 안전성 제고 등 여러 면에서 더욱 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최근의 구제역 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방역과 사후관리에 발 빠른 대처를 하였는데, 그만큼 우리 축산이 경쟁력이 있고 선진화 되어 간다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고 기본에 충실 한다면 FTA 등 어떤 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료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곡물 수급, 환율, 운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구매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기술력과 생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성공한다는 기본 이념 하에 전체 산업은 물론 사료산업도 건실하게 발전하는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올해는 연초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이 멀쩡한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으며, 대일 돈육수출 중단 등 축산관련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긍정의 마인드로 어려움을 기회로 변화시켜야겠지요. 한 단계 더 높은 방역 의식과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픔을 크게 공감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고객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지속 가능한 축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 강연하는 모습

가 실시한 시장조사에서 2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축산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현상이며 저희 회사는 그러한 고객들에게 비전을 같이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사업파트너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인재개발과 미래지향적인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지요.

마지막으로 축산은 정말 가치 있는 산업입니다. 일터이고 삶터이면서 정말 안전하고 믿음 있는 양질 동물성 단백질 식품 공급의 의미를 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비교적 일찍 산업화되고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 자영 축산 농장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최근 여러 예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에서 느낀 점이지만, 서구인에 뒤지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체력, 진취적 사고와 밝은 미소 속에 영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의미 있는 사업에서 같이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